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양육경험

송선화¹ · 안효자²

동신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시간강사 · 조선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유아교육전공¹, 동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²

Experience of Child-Rearing of Filipino Married Immigrant Women

Song, Sun-Hwa¹ · An, Hyo-Ja²

¹Part-time Lecturer,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Dongshin University · Candidate Major in Child Education, Department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²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ongshin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experiences of immigrant women from Philippines in child-rearing. **Methods:** The study design was a qualitative research. Participants were 15 Filipino immigrant women living in rural Korea. Average age was 37 and average duration of marriage was 11 year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participants were interviewed once or twice between December 2009 and February 2010. Data were analyzed with Colaizzi's (1978)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Results:** The Four themes-clusters were identified from fourteen themes. The theme-clusters (themes) were 1) Responsibility of a mother as a foreigner (being a role-model, patience, strict upbringing); 2) Practical problems of child-rearing (parenting alone, language difficulties, financial difficulties, lack of husbands' support, cultural obstacles); 3) Worries about their children (children's emotional problems, speech disorders, maladjustment at school); 4) Hopes for the future (self-satisfaction, expectations for their children, social support). **Conclusion:** The results help in understanding the situation of immigrant women from the Philippines when they nurture their children and suggest the necessity of programs focusing on improving mother-child relationships, especially as related to mothers' limited language skills. Further comprehensive education programs to improve better father-child relationships in relating to each other should be developed.

Key Words: Philippines, Immigrant, Child rearing, Qualitative research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는 국제적 지위향상과 저출산 및 고령화 등으로 중국, 동남아시아, 일본 등으로부터 결혼을 매개로 한 여성이주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 2009년 현재 결혼이민자는 125,673명으로 전체 외국인 중 11.4%

에 해당하고, 우리나라 전체 결혼건수의 11.0%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여성결혼이민자가 8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출신국가로는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여성이 가장 많고 동남아, 일본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MPAS], 2009).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의 자녀도 증가하여 2009년 현재 107,689명으로 2008년도 49,682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 중 6세 이하 자녀가 64,040명, 7세에서 12세 사이

주요어: 필리핀, 국제결혼, 양육, 경험, 질적 연구

Address reprint requests to: An, Hyo-Ja, Department of Nursing, Dongshin University, 253 GeonJae-ro, Naju, 520-714, Korea.
Tel: 82-61-330-3586, Fax: 82-61-330-3580, E-mail: callm68@dsu.ac.kr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9-32A-B00135).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 (MEST) (KRF-2009-32A-B00135).

투고일 2011년 4월 30일 / 수정일 1차: 2011년 6월 7일, 2차: 2011년 6월 17일 / 게재확정일 2011년 6월 17일

가 28,922명으로, 12세 이하가 전체의 86.3%를 차지하고 있다. 이 추세가 계속 유지된다면 2020년에는 어린이 5명중 1명은 다문화가정 자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MPAS, 2009), 이미 농촌 지역의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의 반 이상이 다문화가정의 자녀로 구성된 경우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대부분은 한국생활에 적응하기도 전에 임신과 관련된 다양한 생리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어(Kim, 2008; Park, Park, & Kim, 2007), 한국생활에 대한 적응과 분만 및 양육이라는 이중고에 처해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자녀양육에 관한 충분한 준비와 지식이 없는 상태로 부모기를 맞아(Kim, 2008; Oh, 2005), 자녀양육에 대한 효능감이 낮고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 게다가 한국사회에서 자녀양육은 주로 어머니의 역할로 간주되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들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언어와 사회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일반가정에 비해 어려움이 더 많다고 하였다(Seo & Lee, 2007). 또한 결혼이주여성은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높고 뚜렷한 우울증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적절한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을 감소시키며 부모와 가족과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자녀의 문제행동을 증가시킨다(Chou, 2010; Crnic & Greenberg, 1990; Lee, 2008; Patterson, 1982; Williams & Carmichael, 1991). 현재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서 언어 습득 지연과 이해력 미숙, 학습 부진, 사회성 및 성격발달의 문제, 정체성 혼란 등의 다양한 인지적, 발달적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Oh, 2005; Park, 2010; Seo & Lee, 2007; Seol, 2006). 이러한 문제는 취학과 더불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다문화가정에서의 부모역할과 부모자녀관계는 새롭게 조명될 필요가 있다(Seoul Development Institute [SDI], 2007; Song, Jee, Cho, & Lim, 2008).

현재 취학 아동이 가장 많은 다문화가정은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출신가정이며, 다음으로 필리핀 여성가정이 많았다(MPAS, 2009).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은 통일교를 통해 결혼을 많이 하였으며 경기도 다음으로 전라남도 농촌에 많이 거주하고 있고, 비교적 고학력자가 많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가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Kim et al., 2010; Yoon, 2005).

한편, 필리핀 사람들은 380년간 식민지를 경험하면서 국제결혼에 대해 매우 수용적인(Kim, 2010) 반면, 한국사회에서는 필리핀 국제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해서 피부색과 외모의 차이로 이방인 취급을 하고 있다.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의 피부색은 중국과 일본 결혼이주여성들에 비해 외모에서

한국인과 차이가 많이 나고, 또한 문화적인 차이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Seo & Lee, 2007), 이러한 문제는 자녀에게 심리사회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Lee, 2008). 다문화가족의 아이들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도 따돌림을 당할 수 있고 학업성취도 매우 낮은 경향이 있어(Oh, 2005),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입장에서는 피부색으로 인한 자녀에 대한 걱정이 남다를 수 있겠다. 실제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에게서 학교적응과 심리적 건강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지 않고, 심리사회적 적응요인에서도 위험요인이 많고 보호요인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An, 2008; Lee, 2008). 이러한 점에서 현재 현저하게 취학아동 수의 증가율이 높고, 학습이나 심리적 불안정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에 대한 양육과정에서의 경험이 어떠한지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금까지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선행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을 위한 대처전략, 가족과의 관계(Kim & Un, 2007; Yoon, 2005) 등으로 매우 적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국가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전체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결혼초기의 적응과 자녀양육에 관한 양적 또는 질적 연구들이 대부분이다(Kim, 2008; Park et al., 2007; Seo & Lee, 2007; Song et al., 2008). 이러한 연구들이 결혼이주여성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을 제언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가별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결혼이주여성이라는 큰 범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이주여성의 차이를 무시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농촌 거주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경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현상학적 접근을 통해 분석하고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양육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고 자녀양육에 있어서 어려운 점과 심리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적응과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 경험은 어떠한지 이해하고, 이들의 양육경험의 본질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보는데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질문은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머니의 경험은 어떤 것인가?’이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농촌거주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자녀양육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인간의 경험을 개인이 경험하는 대로의 의미에 중점을 두고 본질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현상학적 방법을 사용한 질적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전라남도 농촌거주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필리핀 이주여성들이다. 본 연구가 자녀양육에 대한 경험임을 고려하여 자녀 양육경험이 있으며, 적어도 한국에 5년 이상 거주하여 영어 또는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눈덩이 표집방법을 통해 모집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로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19명을 모집하였으나, 1명은 첫날 초기면담만 하였고, 3명은 자녀양육 경험의 내용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최종 15명만이 이 연구의 참여자로 선정되었다.

3. 연구자의 준비

연구참여자의 경험진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의미에 민감해지기 위해서는 연구자 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자들은 3명으로 질적 연구방법론과 철학을 이수하였으며, 학회지에 질적 논문을 발표한 경험이 있었다. 그리고 국제 질적 학회와 국내 질적 연구회에 참석하여 질적 연구방법론 및 자료분석방법을 습득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준비하면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선입견, 특히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는지 반추해 보았으며, 자료수집이 완전해질 때까지 문헌고찰 하는 것을 억제하였다.

4. 연구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팀은 연구참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자유의지에 따라 참여의사를 밝힌

대상자를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시작 전에 참여자에게 익명성의 보장과 면담내용은 연구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면담도중 언제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참여자가 원할 경우 탈퇴할 수 있으며, 면담내용은 녹음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된 동의서를 받았다. 면담이 끝난 후에는 답례품을 지급하였다. 자료분석 과정에서는 연구자가 대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름 대신 부호로 언급하였다.

5.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09년 12월부터 대상자를 모집하여 자료가 완전히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된 2010년 2월 22일까지였다. 첫 만남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서를 받았으며, 동의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일반적인 특성을 질문하면서 의사소통 정도를 파악하였다. 그 다음에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미리 나눠주어 다음번 만날 때까지 생각해보도록 하였다. 반 구조화된 질문지는 10개 문항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 자녀는 어머니에게 어떤 존재, 자녀양육에 어려운 점, 남편과 가족의 도움 여부, 자녀를 양육하는데 가장 힘이 되는 것, 자녀의 행동 중 걱정이 되는 면, 필리핀 어머니로서 자녀 양육에서의 강점, 한국과 필리핀의 양육방식의 차이, 한국에서 자녀 양육시 도움이 되는 단체나 사람, 자녀에 대한 기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두 번째 만났을 때 면담은 연구실에서 이루어졌으며 면담내용은 자료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자의 허락 하에 2개의 녹음기에 녹음되었고, 참여자에게 한국어와 영어로 의사표현이 가능함을 알렸다. 참여자의 한국어 구사능력의 미흡함을 감안하여 전사자를 보조 연구자로 참여시켰으며 연구보조자는 연구참여자들의 언어적 · 비언어적 표현과 진술당시의 분위기 등을 면담노트에 기록하도록 하였다. 보통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였고, 참여자 1명당 면담 2~3회가 수행되었다. 면담이 끝난 즉시 참여자의 말 그대로 필사하였으며, 필사된 자료는 연구자가 전체적으로 녹음 자료와 비교하여 정확하게 옮겨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6. 자료분석 및 결과에 대한 신뢰도 타당도 확보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대상자의 살아있는 경험의 의미를 밝히는데 초점을 둔 Colaizzi (1978)의 현상학적 분석방법

을 근거로 다음의 7단계를 거쳐 자료를 분석하였다. 1단계에서는 녹음한 모든 참여자의 면담내용을 듣고 필사하여 그것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한 전체적 느낌을 공유하고자 노력했다. 2단계에서는 참여자의 진술에서 현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미 있는 말이나 문장을 찾아내는 것으로써, 총 364개의 진술이 선택되었다. 이를 통해 3단계에서는 2단계의 문장과 구절로부터 32개의 의미단위 문장을 형성하여 하위주제(sub-theme)로 분류하여 그 안에서 의미의 맥락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4단계에서는 이렇게 구성된 의미를 주제(theme)와 주제모음(theme clusters)으로 분류하여 조직하였으며, 이를 통해 14개의 주제와 4개의 주제모음으로 분류하였다. 5단계에서는 하위범주와 주제, 주제모음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기술하면서 경험의 전체적 의미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6단계에서는 조사된 현상의 근본적 구조를 명확하게 최종적으로 기술하면서 선행단계에서 확인된 경험현상의 공통적 요소들을 통합하여 본질적 구조를 진술하였다. 7단계에서는 연구참여자의 입장으로 돌아가 봄으로써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경우에는 자료가 “포화될 수준까지” 분석을 계속하여 새롭게 나온 자료는 거의 없었으며, 주로 재확인된 내용을 통하여 타당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였다.

본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확인은 Guba와 Lincoln (1989)이 제시한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에 근거하였다. 사실적 가치(true value)를 높이기 위해 각 참여자와 심층면담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면담을 하는 동안 모호한 진술이 있는 경우 참여자에게 다시 질문하여 진술의 의미를 확인하였다. 면담이 끝난 후 면담 내용을 여러 차례 읽으면서 연구자의 질문과 태도가 적절했는지 평가하는 자기 성찰적 메모를 하여 다음 면담 시 참조하였다. 자료분석 시 참여자의 진술의 의미를 파악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연구자간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석결과를 상호점검하면서 공통된 의미를 발견하였다. 최종적으로 파악된 주제모음, 주제 그리고 하위주제에 대해서 참여자 2인에게 반영적 읽기를 하여 자신의 경험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연구의 적용성(applicability)을 위해 양육경험에 대한 참여자간의 개별 인식 차이 및 맥락상의 차이를 간과하기 쉬우므로 이러한 점에 유의하면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시 참여자 개개인의 독특한 배경에 대한 대화를 하면서 의미 있는 진술에 대해서는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주제의 본질적 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참여자의 진술이 반복적으로 나타

나서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도출되지 않을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고 심층 기술하였다. 일관성(consistency)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료에서 발견된 주제와 범주에 대한 분석적 사고를 위해 지속적 비교방법을 통해 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하였고, 자료분석 시 질적 연구의 경험이 있는 간호학 교수 1인과 사회복지학과 교수 1인에게 자료를 의뢰하여 다시 분석하도록 하였으며, 연구자에 의한 분석과 비교하여 주제에 대한 수정 작업을 하였다. 이와 더불어 감사성(auditability)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면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연구자들 간에 결혼이주여성의 양육체험에 대한 선이해와 가정에 대한 토의를 하여 연구자의 주관성이 면담과정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 중립성(neutrality)을 확보하였다.

연구결과

참여자는 총 15명이며, 평균연령은 37세, 남편의 평균연령은 46세로 약 9세정도의 나이 차이가 있었고, 자녀수는 평균 2.27명, 결혼기간은 평균 11년이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3명, 대학중퇴 1명 그 외는 모두 대학졸업이었으며, 남편의 학력에 대해서는 대부분 정확하게 잘 모른다고 하였다. 종교는 결혼당시에는 통일교였으나, 결혼 후에는 5명만이 기존의 종교를 유지하고 나머지는 가톨릭 또는 무교라고 하였다. 직업은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공장과 농사일을 하였고 현재는 10명이 영어강사로 활동하며, 참여자의 남편은 2명을 제외한 13명이 농사 또는 임시직에 종사하였다.

참여자들의 자녀양육 경험을 분석한 결과 의미구성 32개, 하위주제 28개, 주제 14개, 주제모음 4개가 도출되었으며, 주제모음으로는 ‘외국인 어머니로서의 책임감’, ‘양육의 현실적 문제’, ‘자녀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확인되었다.

주제모음 1. 외국인 어머니로서의 책임감

1) 역경에 맞서 헤쳐 나가는 본보기

참여자들은 자녀들이 자신의 생각과 행동, 심지어는 자신이 임신했을 때 자신의 마음상태까지도 닮는다고 보았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한국어를 배우고,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강하게 대처하면 자녀들도 어머니를 닮아 한국어도 빨리 배우고 학교

에서도 잘 적응하기 때문에 어머니는 낯선 곳에서 역경에 맞서 헤쳐 나가는 본보기가 되려고 하였다.

제가 뱃속에 있을 때 하는 마음이 비슷해요. 첫째는 제가 항상 엄마 보고 싶고 눈물 나왔는데, 그러니까 큰 애도 비슷해요(참여자1). 엄마가 잘 때리니까 애기들도 잘 때리나 보다 나 이런 생각 있어요(참여자2). 애들이 나를 관찰하고 있잖아요. 엄마 한글(한국) 말 잘하면 애기도 한글 말 잘하고 그러는구나(참여자5). (자녀들이 지켜봄)

그냥 파이팅만해요. 안 된다 힘들다 그러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 안 돼요. 긍정적인 생각... (참여자11). 한번 학교에 가서 “필리핀 사람인거 어찌라고, 너희들 OO이한테 그렇게 하면 가만 안둘 거야.” 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강해지고 싶어요(참여자5). (강해지고자 함)

2) 참고 삼

참여자들은 한국에서의 적응, 남편과의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이혼을 생각해보았지만 이혼하게 되면 자녀들의 양육과 교육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이혼을 포기했다. 한국에서의 삶이 힘들고 남편과 이혼하고 싶었지만 아이들을 보면 힘이 생기고 행복해졌다. 참여자들에게 자녀는 자신의 삶이고 희망이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고통도 인내할 수 있었다.

남편은 애들처럼 행동하고 집에만 있고 돈도 없고 가끔 그만두고 싶어요. 근데 애들 때문에 계속 살아야 해요(참여자4). 혼자 필리핀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다 멈추고 싶었거든요. 제 남편과 이혼하고 새로 정착하고 싶었어요. 근데 애들 때문에... OO가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혼하면 애기 교육시키기 힘들어요(참여자6).

힘들어해도.... 애들 보고 오면 웃으면 힘나고(참여자14). 힘들지만 애기만 봐요. 애기만 봐도 행복하고... 힘이 되요(참여자11). (자식 때문에 이혼 못함)

3) 강하게 키우고자 엄하게 교육

참여자들은 자녀의 학교 적응에 대해서 입학 전부터 걱정을 많이 하였으며, 자녀가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괴롭힘

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부도 잘하고 강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자녀에게 좀 더 엄하게 훈육을 하였으며, 학교에서도 누가 괴롭히면 참지 말고 당당하고 강하게 대처하도록 가르쳤다.

저기 앞에 3명 무릎 꿇어 앉히고 한명 씩 한명 씩 누가 먼저 했는지 뭇 때문에 싸웠는지 절대 통과 안 해요(참여자8).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는 좀 엄격해요. 특히 제 아이들에 대해서는(참여자5).

‘왜 엄마 필리핀 사람인데 어찌라고?’ ‘우리 엄마 필리핀 사람이지만, 근데 이제 한국 사람이예요’ 제가 이렇게 교육했으니까요(참여자5). 누가 괴롭히면 가만히 안 있어요. 누가 괴롭히면 가만있으면 안돼요. 가만있으면 나중에 더 많이 괴롭힐 거야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참여자8). (엄하고 강하게 키우고자 함)

주제모음 2. 양육의 현실적 문제

1) 지지기반 없이 혼자 양육하기 버거움

참여자들은 한국에 적응하기도 전에 임신을 했고, 임신해서는 농사일과 가사로 태교할 시간도 없을 정도였다. 아이를 낳은 후에는 친정엄마도 없이 혼자서 아이를 돌보기가 힘들어 친정엄마 생각을 많이 하였고, 자녀들이 연년생이거나 나이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 자녀들끼리 싸우고 질투도 많아 돌보기가 버거웠음을 나타냈다.

태교할 시간이 없었고, 제일 힘든 거는 아기가 막 태어날 때 애기들 눈에 다 데리고 와야 해. 가까운데 봐주고, 베개랑 이불하고, 두고 나 일 해야 해. 밤에도 못자고, 그다음에 아기 또 조금 보고 웃고 다른 사람 아기 맡기고 아이랑 함께 할 시간이 없어요(참여자14). 애기 나올 때 엄마 생각 많이 했어요. 엄마가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고요. 혼자 하니까 어려워요. 친정엄마 생각이 했어요(참여자3). (농사일과 양육병행으로 버거움)

집에만 있으면 애들 울어요. 애들 3명이어서 제가 못나가니까. 가끔 나가려면 한명은 걸어가고, 한명은 업고, 또 한명은 앞에.... 그리고 가방도 있어요(참여자8). 그리고 형제들 간에 질투 미움 많이 있어요(참여자9). (연년생으로 힘들)

2) 한국어 부족으로 부정적 상호작용 강화

참여자들은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녀의 숙제, 한국어의 존댓말을 가르쳐 줄 수 없어 안타까워했다. 또한 딸로 야단치기 보다는 행동적인 처벌이 좀 더 강화되었다. 자녀의 한국어 습득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조기에 어린이집에 보냈다. 그 결과 한국어를 빨리 배우고 있는 자녀들은 어머니의 한국어의 부족에 대해 도움을 기대하지 않거나 심지어 무시하기도 하여 모자간의 부정적 상호작용을 강화시켰다.

숙제 있는데 저 도와주고 싶지만 못 도와줘요. 제가 발음이 안 좋잖아요. 설명도 많이 못하고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참여자5). I also don't know what is 반말, what is 존댓말, 한국에서는 존댓말 중요... 아들 손님 왔으면 그냥 반말해요(참여자13). 애들이 이제 존댓말 해야 하는데 그게 어려워요(참여자15). (자녀 교육에 한계)

저는 바로 뭔가를 말하고 싶은데 한국말로 말하는 게 어렵잖아요. 한국말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나 상대가 하길 바라는 것을 바로 정확하게 말하는 게 어렵거든요. 애들 행동 자꾸 싸워요. 처음 제가 집에 있을 때 많이 때렸어요. 말 안 나오니까 네 무조건 때려요(참여자2). (말 대신 처벌이 강화됨)

어린이집에 한 2살 때 일찍 보냈어요. 저도 걱정해. 저도 또 한국말 못하니까(참여자9). 애기 빨리 어린이집 보내야 빨리 배운다고. 시골하고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참여자7). (조기에 어린이집 보냄)

유치원 다닐 때는 ‘엄마, 너무 시시하다.’ 그랬어요. 저보고 한국말도 모르냐? 애기가 저에게 교육 같은 것이나 영어, 한글 말 같은 것 기대하지 않아요(참여자1). 근데 제가 발음 좀 부족하니깐. ‘엄마 이상해. 엄마 한글 바보’ 이래요(참여자7). 우리아들 물어보면 ‘야 그런 거 엄마 모르니까 아빠 오면 물어봐야지’ 그래요. 조금 섭섭하죠(참여자8). (자녀에게 무시당함)

3) 경제적 어려움

참여자의 남편들은 농사를 짓기도 하지만 일용직이나 단순노무직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쉬고 싶어도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사주고 학원비를 벌기 위해서 일해야 했다.

애들 셋 키우는데 월급이 백만 원도 안 돼요.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 받으면 약 먹어도 소용없다고.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몇 달만 쉬어야 된다고. 그런데 쉬면은 우리 애들 어떻게(참여자11). 엄마 일 안하면 우리 아기 필요한 거 못 사줘요(참여자7). (아파도 일해야 함)

어린이집 교육비가 너무 비싸요. 학원은 너무 비싸니깐... 못 보내요. 그냥,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엄마랑 아빠랑 그렇게 학원비 비싸니깐 니들 진짜 학원 못 보내겠다. 공부할 때는 그게 제일 걱정이예요. 이제 대학 들어가야 할 때 대학 못가면... 그 학원도 못 보내고(참여자14).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

4) 남편의 양육역량에 실망

참여자들은 비교적 학력이 높은 편이지만 한국어가 부족하여 자녀의 과제를 도와줄 수 없어 남편에게 요청을 하지만 남편은 학원에 보내라고 하거나 아내에게 미루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늦은 나이에 자녀를 본 남편은 자식에 대한 애정은 있지만, 자녀 훈육에 있어 일관성이 없었다. 또한 자녀와 대화하기 보다는 육체적인 놀이를 많이 하고, 술에 취해서는 자녀들에 대한 애정표시를 난폭하게 행사하여 자녀들이 싫어하는 등 자녀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미숙하였다.

우리 아기 질문 있을 때 학원 보내~이렇게 해요. ‘그냥 엄마한테 가.’ 읽기 할 때는 발음 다르니까 애기아빠가 해야지. 근데 애기아빠는 말만해요.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애기 아빠도 안 가르쳐줘요(참여자13). (소극적인 태도)

애기아빠 그때 막 나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해요. 아기들은 아빠 안무서워해요. 아빠 교육 할 때는 화내다가 3분 있다가 화 풀려요. 그래서 아빠 못 믿어(참여자7). (일관성 없는 훈계)

애기를 좋아해요. 근데 가끔씩 그 사람이 취해가지고 는 아이들을 해치기도 해요. 가끔씩 그 사람은 좋지 않아

요. 조금만 잘못해도 한국 표현으로 “큭!” 이래요(참여자6). He is too much active, very active, 항상 날마다 box (참여자13). 그냥 맨날 애기아빠가 우리 딸한테 야 이년아, 나의 아들 2살이었을 때 뺨을 때리고 발로차고… (참여자4). (관계형성 미숙)

5) 폐쇄적이고 유교적인 농촌문화에 부딪힘

남편과 가족들은 이주한 여성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주지 않았고, 심한 경우에는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의심을 받기도 하고 자식들에게 절대로 필리핀어로 말하지 말 것을 강요당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문화와 양육의 차이로 필리핀에서는 남녀가 동등하고 함께 집안일을 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장남에 대한 편애와 남자는 부엌일을 돕지 못하게 하여 갈등이 있었다. 우리나라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유교적 문화는 아직 농촌사회에서는 크게 잔재하고 있어 비교적 남녀가 평등한 필리핀 사회와의 문화적 충돌을 경험하였다.

But some relatives, Their thinking maybe is not my husband's baby like this, Because is 바로 바로 임신하니까요. Because after one month before we came here. So they thinking maybe some, maybe have boyfriend 필리핀 남자. 필리핀에서, 그래서 너무 많이 아팠어요(참여자13). (주위의 의심)

타갈로그어 우리 남편은 싫어해요. 절대로 가르치지 말라고. 우리 만나면 그냥 우리 타갈로그어 할 때 그거 화나요. 남편, 네, 그냥 ‘영어랑 한글로 그것만 해.’ 타갈로그어 하면 ‘절대로 하지 마.’ 그래요. (참여자13) 아이의 언어적인 문제는 직설적으로 말하기를 ‘엄마가 제일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도 아니고 엄마가 제일 잘못 했대요(참여자6). (모국어 사용 제지)

딸 둘… 그 막둥이 낳어요? 안 봐요. 또 딸 낳어? 또 진짜 많이 화났어요. 그러니까 안 봤어요. 그 병원에서 집에 왔을 때, 어머니~ 안 봐요. 안 봤어요. 또 남자는 하늘 일 못 시켜요(참여자12). 우리 시어머니는 큰아이 화나며… 무조건 동생 때리니까 그거 안 돼요(참여자14).

그리고 한국 엄마들은 아이들한테 오냐오냐 하잖아

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잘못하면 야단도 치고 조금 많이 잘못하면 매도 때리고 그랬어요(참여자11). (양육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

주제모음 3. 자녀에 대한 걱정

1) 자녀들이 커 가면서 불안정한 행동 두드러짐

참여자들은 자녀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놀던 강아지 인형이나 담요에 집착하고, 손가락 빨기나 손톱 뜯기를 학령기까지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였다. 또한 어머니한테 과도한 집착과 낯가림, 학년이 올라갈수록 행동이 과격해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였다.

잠잘 때 인형 강아지 2살부터 아직도 매일 안고 뽀뽀하면서 자요. 강아지 없애려 한번 했는데… 강아지 어디 있어? 하면서 안자요(참여자3). 손 빠는 게 여섯 살 일곱 살까지… 손 안 빨면 잠이 안와요. 습관인 것 같아요. 손가락 다 잘라버린다고 그랬어요(참여자8). 초등학교 올라가야 하는데 담요 없음 안자요(참여자15). (중간대상에 집착)

계속 옆에 있으니까 나밖에 몰라요. 낯가림 조금 있어요. 엄마 이려고 옆에 있어요(참여자15). 우리 아기는 매일 엄마 사랑해요. 매일 안아달라고…(참여자3). (낯가림)

잘 이야기 안하고 뭔가 화나면 말 안하면 계속 방에만 있고(참여자11). 중학생 가면서 큰애 지금 행동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가끔 이해 못해요. 그 물어 볼 때는 갑자기 큰소리해요. 엄마 왜 때려요 엄마 싫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못 때려요(참여자4). (반항행동 증가)

2) 언어장애

참여자들은 외국인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녀의 언어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으며, 실제 언어적인 문제로 언어치료 기관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기도 하고, 전문병원을 방문하여 언어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장애진단을 받기도 하였다.

말이 부족하고 느렸어요, 4살 정도에… 저 걱정이 돼서 애기 정신 받았어요. 한국말 잘 몰라요. 밖에 안

나갔어요(참여자3). 그냥 ‘엄마, 엄마, 엄마’ 아니면 ‘오보 오보’라고 말을 해요. 병원에서 검사했을 때 의사 말이 아이가 자폐가 있다고(참여자6). 내 딸 멍청이로만 들어. 장애인 면허 받았다(참여자10). (말이 늦음)

3) 외모로 놀림 받아 등교 거부함

자녀가 어릴 때는 외모가 인형 같다는 말도 들었지만 학령기가 되면서 외모로 놀림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녀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자신감이 없어지게 되었고, 심한 경우 등교를 거부하기도 하였다. 교가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대처해 주기를 바라기도 하였다.

처음에는 밖에 나가면 텔런트 같다고…. 인형 같다고…. 크니까 딸은 색깔 제일 까마니까 필리핀사람 같이 생기면 완전 스트레스 받아요. 눈하고 이미지하고 저 많이 닮았어요. 학교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한국 애들이 매일 필리핀 필리핀 놀리니까 자신감 없어요(참여자12). 우리 작은 아들은 다른 친구들이 무섭다고, 얼굴 무섭다고 놀리니까, 외국인 아들이니까(참여자14). (외모로 놀림)

담임선생님이 ‘OO가 많이 울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OO가 학교에 못가겠다고 그래요. 집에 오면 정말 너무 힘들다 그리고… (참여자6). ‘엄마 어떤 친구가 나를 때렸어요. 어떤 친구가 나한테 연필로 이렇게. 근데 선생님이 알아서 한다고, 엄마 학교 안와도 되요.’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엄마 나 학교 안가요’ (참여자5). (등교거부)

주제모음 4. 미래에 대한 희망

1) 영어능력은 자녀의 기(氣)를 살려줌

참여자들이 대학을 나온 경우에는 초등학교에서 영어선생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지역아동센터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경우가 많았다. 자녀들은 영어 교사인 어머니를 친구들에게 자랑했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자녀의 진로에 도움이 될 영어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 뿌듯해 하였다. 필리핀 어머니의 영어구사능력은 자녀에게 자신감을 주고 자녀의 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자녀의 기(氣)를 살려줄 수 있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았다.

아이들이 ‘엄마 필리핀 사람이지? 필리핀 사람’ 하면 딸은 그냥 ‘어쩔래?’ 이러면서, 엄마 영어 강사다…. 이렇게 자랑해요(참여자7).

큰애는 옛날에는 30분, 지금 중학교 갈 때 1시간, 동생은 20분(참여자12). 제가 애들한테 필리핀 말하고 영어를 가르쳐 줘야지, 지금 아이들이 영어나 필리핀 말이나 잘 가르치게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한국에서 우리 아이들이 매우 유용하다고. 수년이 지난 후예요. 또 다른 말도 할 줄 안다면, 커서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있어(참여자5). (영어교육 가능)

2)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 기대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문화와 언어적인 측면에서 보다 다양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필리핀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에 진출하여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위해 자신의 연고자가 있는 필리핀에 가서 공부도 하고 필리핀 문화도 배우길 기대하였다.

속으로 생각해요. 만약에 필리핀 보내면 아이들 영어 잘 배우겠다. 내 지금 생각은 문제 다 끝내고 마닐라 집에서 살고 싶어, 애들 때문에(중략) (참여자2) ‘고등학생 되면 필리핀으로 데리고 가서 키워야겠다.’ 그런 계획 있어요. (중략) 저기도 그냥 international school 만 보내면(참여자7). 한국 문화만 아니고, 지금은 필리핀 문화도 알아야 돼(참여자12).

한국말도 할 줄 알고, 영어도 할 줄 알고, 필리핀 말도 할 줄 알고, 또 다른 말도 할 줄 안다면, 커서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있어, ‘너는 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아니야.’라고 말했어요. 필리핀에서도 살 수 있고, 어른 되면 아프리카 같은 데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참여자1). (국제사회로 진출 기대)

3) 사회적 지지의 증가로 자녀교육에 도움

필리핀은 가톨릭을 80% 이상 믿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필리핀 주부들은 종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성장했고 한국에 와서도 기독교의 교리와 신부나 목사의 설교를 자녀의 교육 지침으로 삼고 있었다. 최근에 국가와 민간단체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위해 학습 도우미를 파견하고 있어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한결 수월하고 도움이 되었다.

목사님 말씀이 ‘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만약에 제가 화가 나면 ‘너 목사님한테 가. 너 목사님 말 잘 듣잖아(참여자1). 제가 본 성경구절에도 “네 아이들이 어릴 때 가르쳐라. 그들이 자라고 나서도 거기에서 떨어지지 않게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참여자5). (종교로부터의 지지)

처음에는 숙제 걱정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문화 가정 도움미 그거 있잖아요. 복지관에서 도와줬으니까. 대학교에서도 와요(참여자12). 전 놀랐어요. 왜냐면 다른 나라 그런 것 없어요. (중략) ‘와, 여기 한국에서 대단하다.’ ‘우리 다문화 가정이 나라에서 많이 받았잖아요.’ 고맙다고 생각해야 되죠(참여자3). (민관으로부터 지원 증가)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필리핀 결혼이주여성 자녀 양육 경험에 대한 참여자들의 최종적인 진술은 다음과 같다. 참여자들은 한국농촌으로 시집와 태교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할 일이 많았고, 심지어 이른 임신에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의심을 받기도 하였다. 분만하고도 아이와 보낼 시간이 없을 정도로 농사일과 집안일이 많았고, 게다가 아이들이 연년생인 경우가 많아 친정엄마도 없이 혼자 감당하기 더욱 힘들었다. 참여자의 한국어 구사능력 부족은 자녀의 언어와 교육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체벌이 강화되기도 하고 자녀로부터 무시당하기도 하여 자녀와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녀들의 양육비도 감당하기 힘들어 했으며 남편을 대신하여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 자녀들과 상호작용의 시간은 더욱 감소하였다. 아직 농촌은 폐쇄적이고 유교적인 전통이 많이 잔존하고 있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차별과 남녀불평등한 양육방법의 차이로 가족간에 갈등을 경험하였다. 나이가 들어 자녀를 본 남편은 자녀를 귀여워하지만 자녀교육에 있어서는 귀찮아하거나 외국인 아내에게 미루는 경향이 있었다. 자녀훈육에 있어서도 감정적이고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아이들이 아버지를 무서워하지 않는 경향 등으로 남편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참여자들은 아동이 취학하기 전부터 아동의 외모와 언어문제로 학교적응을 걱정하였으며, 실제 학교에서

놀림을 당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학교 등교를 거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참여자들은 담임교사가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고, 자녀에게도 강하게 대처하도록 가르쳤다. 자녀는 어머니의 행동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강해져야 하고 인내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증가하고 참여자들이 원어민 영어강사로 활동하면서, 자녀들은 어머니가 영어강사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자랑한다고 하였다. 참여자들 역시 자녀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수 있고, 영어가 앞으로 자녀의 진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나아가 국제적으로 진출하는데 유리할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었다.

논 의

본 연구는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양육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심층면담을 하였고, 그 결과 ‘외국인 어머니로서 책임감’, ‘양육의 현실적 문제’, ‘자녀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희망’ 등에 4개 주제모음을 결론적으로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 중에서 남편과의 평균 연령차이가 9세이고, 학력은 대졸자가 많으며, 종교는 통일교와 가톨릭 및 기독교 그리고 영어강사로 활동하는 양상 등은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Kim et al., 2010)와 같았다. 자녀수에 있어서는 평균 2.27명으로 전국 다문화가정 평균자녀수 0.9명보다 많았으며, 이는 필리핀 문화에서 다산을 장려하고(Cho, 2008), 가족계획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없었던 결과로 사료된다.

필리핀 어머니들의 첫 번째 양육경험은 ‘외국인 어머니로서의 책임감’으로 ‘역경에 맞서 헤쳐 나가는 본보기’, ‘참고 삶’ 그리고 ‘강하게 키우고자 엄하게 교육’ 하고자 하였다. 필리핀 어머니들은 자신이 어떻게 대처하고 행동하는지를 자녀들이 보고 배우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한국에서의 힘든 상황을 인내하고 강해지고자 하였다. 필리핀 어머니들은 자녀 때문에 이혼할 수 없고, 자녀가 삶이고 희망이라고 하여 결혼이주여성에게 있어 자녀는 단순한 자식의 의미를 넘어 이주생활을 버텨내게 하는 버팀목의 역할과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외국인 어머니들은 자녀가 한국에서 잘 적응하도록 돕는 것을 부모의 중요한 역할로 보았는데(Song et al., 2008), 필리핀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강해야 다문화가정 자

너로서 따돌림과 놀림에 대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Seo와 Lee (2007)의 연구에서도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라고 우습게 보이지 않도록 엄하게 키우고자 한다고 하여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필리핀 어머니의 자녀 양육방식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필리핀 어머니들은 380년 동안 식민지를 경험하면서도 버텨낸 강한 기질로 외모와 언어적인 문제로 차이를 보이는 자녀가 한국에서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머니 자신이 강해야 하고 자녀들도 강하게 양육하고자 하는 양육방식을 볼 수 있었다.

필리핀 어머니들의 자녀양육의 두 번째 경험은 ‘양육의 현실적 문제’로 ‘지지가반 없이 혼자 양육하기 버거움’, ‘한국어 부족으로 부정적 상호작용 강화’, ‘경제적 어려움’, ‘남편의 양육역량에 실망’, ‘폐쇄적이고 유교적인 농촌문화에 부딪힘’으로 나타났다. 필리핀 어머니들은 한국에 도착해 얼마 되지 않아 임신, 분만 그리고 양육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겪어야 했으며, 농사와 양육을 병행하고 자녀들이 연년생이라 특히 버거웠다고 하였다. 특히 양육의 초반에 남편이나 시댁가족보다는 친정엄마에 대한 생각과 지지가 가장 절실하였다. 한국어가 부족하여 자녀의 학습을 도와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으로부터 지원과 지지를 기대할 수 없었다. 게다가 경제적 어려움과 문화적 장벽은 자녀의 양육에 또 하나의 현실적 문제로 자리하였다. Seo와 Lee (2007)는 농촌사회에서 농사를 짓느라 바쁘기 때문에 한가롭게 아이와 놀아 줄 수 없다고 하였고, Song 등(2008)은 형제들끼리 질투와 다툼으로 양육하기가 어렵다고 하여 혼자서 자녀양육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생활에 적응하기도 전에 임신과 분만으로 이중고를 경험하기도 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과 준비 없이 자녀를 양육하게 되므로(Kim, 2008; Park et al., 2007) 양육의 어려움과 양육의 효능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분만과 초기 양육 시 특히 친정어머니의 한국 초대 또는 친정어머니의 부재를 대신할 수 있는 양육도우미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겠다.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어 부족에 따른 자녀양육의 문제는 가장 흔하게 경험되는 양육상의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다(Choe, 2009; Kim et al., 2010; Park, 2010; Seo & Lee, 2007; Song et al., 2008). 어머니의 언어부족은 자녀의 언어수준의 발달차이(Hoff & Naigles, 2002; Weizman & Snow, 2001)뿐만 아니라 모자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필리핀 어머니들은 한국어 구사능력의 어려움으로 말

보다는 행동이 선행되어 신체적인 체벌이 강화되기도 하였고 한국어가 부족하여 자녀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기도 하였다. 필리핀 어머니들은 때리는 신체적인 체벌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체벌로 인해 자녀의 행동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염려하기도 하였다. 실제 저소득층에서 양육자의 언성 높여 화를 내거나 때리고 벌을 주는 훈육방식과 양육에 대한 자신감은 특히 여아의 외현화와 내현화 문제행동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Bang, Yoo, & Hyun, 2010). 또한 Choe (2009)의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자녀들이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자신의 어머니를 무시하거나 소외시키고 심지어는 양육지도에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남편과 자녀 간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자녀들은 아버지의 일관성 없는 훈계와 소극적인 태도로 아버지와 적절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었다. 필리핀 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편들은 Kim 등(2010)과 Yoon (2005)의 연구에서 아내보다도 학력이 낮고, 심지어는 초등학교만 졸업한 사람들이 있으며, 대부분 농어업과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하였다. 외국인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에 대한 교육을 요청했을 때 귀찮아하거나 몰라서 못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있어서도 자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있지만 적절한 표현방법을 모르고, 일관성 없는 훈계로 자녀들로부터 존중을 못 받는다고 하였다. 한국어가 서툴러 자녀양육효능감이 떨어져 있는 외국인 어머니를 위해서는 특히 배우자의 지지가 중요하다(Lee, 2008; Ra & Park, 2009; Williams & Carmichael, 1991). 다문화가정에서는 자녀에 대한 양육과 교육이 어머니의 고유한 과제가 아닌, 부부가 함께 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안정적인 관계는 자녀가 겪고 있는 갈등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Yoon, 2005)이 된다고 봤을 때, 모자간의 언어적인 문제로 파생되고 상호작용의 문제에 대한 개입과 부모교육 또는 부모-자녀관계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다. 필리핀 어머니들은 농촌의 폐쇄적이고 유교적인 문화에 부딪혀 이주여성으로서의 차별과 자녀양육에서의 차이를 경험했다. Song 등(2008)은 이러한 문화적인 차이와 차별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상당수가 경험하는 문제라고 하였으며, Kim 등(2010)은 고학력과 외모의 차이가 있는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차별경험이 더 높다고 하였다. 특히 자녀의 언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직

접적으로 어머니의 책임으로 돌렸다. Seo와 Lee (2007)의 연구에서도 조부모와 아버지들이 아이의 언어발달에 문제가 있는 경우 무조건 외국인 어머니의 탓으로 본다고 하여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한국농촌에서 아직까지도 남아와 장남을 선호한다는 점과 한국인 어머니의 양육 방식에서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고 있었다. 한국인 어머니들은 필리핀 어머니들보다도 교육열이 높고, 훈육방식이 허용적이며 과잉보호적인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는 인정하지만 다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어, Song 등 (2008)의 외국인 어머니들이 자격지심과 죄책감을 느낀다는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필리핀 어머니들의 자녀양육 경험의 세 번째는 ‘자녀에 대한 걱정’으로 ‘자녀들이 커가면서 불안정한 행동이 두드러짐’, ‘언어장애’, ‘외모로 놀림 받아 등교 거부’ 등이 확인되었다. 이는 Kim과 Lee (2009)의 연구에서 결혼이주자가 정서의 낮은 수입과 불안정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해 자녀를 방임하는 경우가 많아 정서장애가 나타나고, 엄마가 외국인이고, 의사소통이 어렵고, 외모의 차이 등으로 인해 학교에서 왕따를 경험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실제 많은 연구(Hoff & Naigles, 2002; Oh, 2005; Seo & Lee, 2007; Seol, 2006; Weizman & Snow, 2001)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자녀들은 결정적 시기에 원활한 언어적 자극이 부족하여 언어발달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자신의 외모에 따른 정체성 혼란, 자존감의 저하 등 문제들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욱 두드러지게 표출되고 있었다. Bang 등(2010)은 저소득층 아이들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짜증과 반항적인 행동이 많아지며 특히 여자아이들에게서 증가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이 필리핀 어머니의 자녀들에게서 더욱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An, 2008; Lee, 2008; Seo & Lee, 2007).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생활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언어문제, 경제문제, 자녀문제이며, 자녀문제 중에서 특히 적절한 양육 및 교육법, 자녀와의 의사소통, 학습지도, 사교육에 대한 부담 등으로(Kim et al., 2010; Park, 2010; SDI, 2007; Song et al., 2008),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그 외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필리핀 아동에게서 중간대상(transitional object)인 인형, 담요, 손가락 빨기 등이 학령기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 중간대상은 위니컷(Winnicott)의 이론으로 말려의 분리-개별화 단계에서 어머니와 분리될 때 나타나서 어머니를 대신하여 자신의 불안을 진정시킬 수 있

는 대체물이라고 하였다(Mitchell & Black, 1995). 중간대상이 학령기까지 지속된다는 것은 자녀의 심리적인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필리핀 어머니들은 ‘영어능력은 자녀의 기(氣)를 살려줌’,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 기대’, ‘사회적 지지의 증가로 자녀교육에 도움’ 등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Yoon (2005)은 필리핀 여성들의 영어구사 능력으로 초등학교 원어민 강사로 채용되면서 경제활동을 하게 되고, 남편을 비롯한 가족들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하였다. 실제 필리핀 여성들의 영어구사능력은 가정경제의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자녀의 기(氣)를 살려주고 장래 자녀의 세계진출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주고 있다. 필리핀 어머니들은 어머니가 한국에 와서 사는 것처럼 자녀 역시 한국에만 머물기 보다는 좀 더 큰 세계로 진출하여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바라고 기대하였다. 이는 Song 등 (2008)의 연구에서 자녀에 대한 기대로 공부 잘하고, 능력 있고, 대인관계가 원만하며,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자식의 진로에 필요한 영어를 교육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세계는 하나라는 통일교의 영향으로 볼 수 있겠다. 자식에 대한 기대와 자식의 진로에 도움이 된다는 이러한 생각과 더불어 현재 여러 기관에서 보여주는 관심과 지원은 필리핀 어머니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필리핀 어머니들은 자녀양육 경험으로 외국인 어머니로서의 책임감, 양육의 현실적 문제, 자녀에 대한 기대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도출하였으나, 결혼이주여성의 출신 국가별 양육체험에 대한 선행연구는 찾을 수 없어 출신 국가별 비교는 어렵다. 다양한 출신국가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양육체험과 관련된 연구로는 Kim 등(2010), Park (2010), Seo와 Lee (2007), Song 등 (2008)의 논문이 있으며, 이들의 논문에는 필리핀 여성들이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주제모음에서 외국인 어머니로서의 책임감, 양육의 현실적 문제, 자녀에 대한 걱정 등은 선행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미래에 대한 희망 부분은 차이가 컸다. 본 연구에서 새롭게 발견된 사실로는 책임감에서 외국인 어머니가 한국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와 자녀가 모두 강해져야 한다는 신념, 양육의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한국어 부족으로 인한 모자간의 상호작용의 문제와 남편의 일관성 없는 훈계와 관계형성 미숙으로 인한 부자간의 문제, 자녀 외모의 차이로 인해 주위로부터 남

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의심 등이며, 미래에 대한 희망에서는 어머니와 자녀가 영어구사능력으로 자녀의 기를 살려주고 진로에 긍정적인 효과와 자녀의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기대하는 것 등이다.

필리핀 어머니들은 자녀를 양육하는데 모국의 양육방식에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모국의 양육방식과 언어적인 문제가 만나면서 신체적인 체벌이 강화되었다. 신체적인 체벌과 외모의 차이, 언어적인 장애등은 자녀의 정서적인 문제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사회적인 관심과 지지 증가 그리고 어머니의 영어사용은 자식의 기를 살리고 진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며, 자녀의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필리핀 어머니의 양육경험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친정어머니의 한국 초청과 자녀에 대한 정서적 불안정에 대한 개입, 그리고 부모-자녀의 상호작용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 부족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상호간의 인식증진과 교육 프로그램 개입을 제언한다.

둘째, 국제결혼 남편들을 위한 부모 되기 또는 부자간의 관계형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셋째, 우리나라에서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중국, 베트남, 일본 등의 국적별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넷째, 필리핀 결혼이주여성 자녀들의 정서적인 문제를 예측할 수 있는 다양한 행동문제에 대한 조사와 연구, 정서적 지지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전남 지역의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으로 일반화에 제한점이 있으므로 다른 지역으로의 확대 연구를 제언한다.

결론

본 연구는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양육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고 자녀양육에 있어서 어려운 점과 심리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외국인 어머니의 한국적응과 양육효능

감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필리핀 어머니의 자녀양육 경험은 4개의 주제모음과 14개의 주제로 구성되었고, 주제모음은 외국인 어머니로서의 책임감, 양육의 현실적 문제, 자녀에 대한 걱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확인되었다. 필리핀 어머니들은 자녀가 강해야 사회와 학교에 적응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자녀들을 강하게 양육하고자 하는 어머니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언어, 경제, 문화, 가족 측면에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다. 어머니의 의사소통의 문제는 자녀와 체벌과 무시로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초래했고, 남편은 일관성 없는 훈계와 관계형성의 미숙으로 자녀와 부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였다. 실제 자녀들에게서 물건과 사람에 집착하는 행동, 언어장애, 등교거부의 문제를 보여 어머니들은 자녀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 반면 어머니들은 자녀가 영어를 구사할 수 있어 자신감도 생기고 앞으로 진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고, 자녀들이 한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졌다.

필리핀 어머니의 양육경험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자녀의 정서적 불안정과 부모-자녀 간의 부정적인 상호작용 그리고 어머니의 강점인 강한 책임감과 영어능력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그들의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키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겠다.

REFERENCES

- An, H. J. (2008). A study on school adjustment and mental health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a rural cit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7, 383-391.
- Bang, K. S., Yoo, H. R., & Hyun, M. S. (2010). Gender-specific problem behaviors of school-aged children according to parenting characteristics in povert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9, 437-446.
- Cho, B. O. (2008). *The Philippines seems to know the history and culture*. Seoul: Happy & Books.
- Choe, H. S. (2009). The mediational role of parenting self-efficacy and behavior on child problem behavior: Female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s and their children.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30(3), 197-211.
- Chou, W. J. (2010). Maternal mental health and child development in Asian immigrant mothers in Taiwan. *Journal of*

- the Formosan Medical Association*, 109, 293-302.
- Colaizzi, P. F.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R. Valle & M. King (Eds.), *Existential-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pp. 6-17).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rnic,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Guba, E. G., & Lincoln, Y. S. (1989). *Fourth generation evaluation*.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Hoff, E., & Naigles, L. (2002). How children use input in acquiring a lexicon. *Child Development*, 73, 418-433.
- Kim, D. H., & Lee, K. E. (2009). The study on analysis for parenting efficacy of married immigrant women at multi-culture family.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Relation*, 14(2), 77-98.
- Kim, D. Y. (2010). Inter-marriage migration and transnationalism focused on Filipina wives in South Korea. *The Southeast Asian Review*, 20(2), 31-72.
- Kim, H. J., & Un, S. K. (2007). A qualitative study on the coping strategies of the migrant women married to Korean men: A case study of Philippine wome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35, 33-66.
- Kim, S. G., Kim, U. K., Cho, Y. J., Kim, H. R., Lee, H. K., Seol, D. H., et al. (2010). *2009 National multicultural families survey*. Seoul: Ministry of Health & Welfare, Ministry of Justice, Gender Equality & Family, Health and Social Affairs Korea.
- Kim, Y. S. (2008). Study on the effectiveness and adaptability of the resilient parenting program to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24, 189-222.
- Lee, Y. J. (2008). Adjustment of children's characteristics in multi-culture families: A study on risk and protective factor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3(1), 79-101.
-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2009). *2009 Local government: Survey results of foreign residents*. Seoul: Author.
- Mitchell, S. A., & Black, M. J. (1995). *Freud and beyond a history of modern psychoanalytic thought*. New York: Basic Books.
- Oh, S. B. (2005). International marriage child ("Kosian") and the problems of the educational environment. *Journal of Korean Education*, 22, 186-213.
- Park, J. S., Park, O. I., & Kim, J. H. (2007). A study on family conflict and life satisfaction for immigrant wome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5(6), 59-70.
- Park, Y. A. (2010). Investigation of immigrant mothers' parental experiences and teachers' child-care experiences.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0(1), 197-223.
- Patterson, G. (1982). *Depression and aggression in family interaction*.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Ra, D. S., & Park, J. I. (2009). Marital satisfaction and social supports of the female marriage immigrant influencing on the parenting behavior. *Family and Culture*, 21(4), 1-20.
- Seo, H., & Lee, S. E. (2007). A study on the difficulties of children from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in agricultural region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2(4), 25-47.
- Seol, D. H. (2006). *Marriage-based immigrants and their families in Korea: Current status and policy measures*. Seoul: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 Seoul Development Institute. (2007). *Multicultural family and social support measures for the settlement of regional*. Seoul: Author.
- Song, M. K., Jee, S. H., Cho, E. K., & Lim, Y. S. (2008). A study on the parental experience of a foreign mother in a multicultural famil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 497-517.
- Weizman, Z. O., & Snow, C. E. (2001). Lexical input as related to children's vocabulary acquisition: Effect of sophisticated exposure and support for meaning. *Development Psychology*, 37, 265-279.
- Williams, H., & Carmichael, A. (1991). Depression in mothers and behaviour problems with their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Paediatrics and Child Health*, 27(2), 76-82.
- Yoon, H. S. (2005). Conflicts and adjustments of foreign wives married to Korean men: Filipina wives in rural Korea. *Local History & Culture*, 8, 299-339.